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10. 4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9/25~9/29)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연준의 긴축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와 중국 헝다그룹 관련 부동산 부문 리스크로 인한 위안화 약세 흐름에 연동되며 환율 상승 출발 후, 고점 인식 속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유입 등으로 소폭 하락. 이어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고금리 장기화 우려 확대되면서 미국채 수익률 급등한 측면 반영하며 환율은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
- 중반 들어, 미 연방정부 섣다운 리스크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와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 속 환율 상승 압력 이어지는 가운데,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등에도 연고점 경신하며 1340원대 후반에서 마감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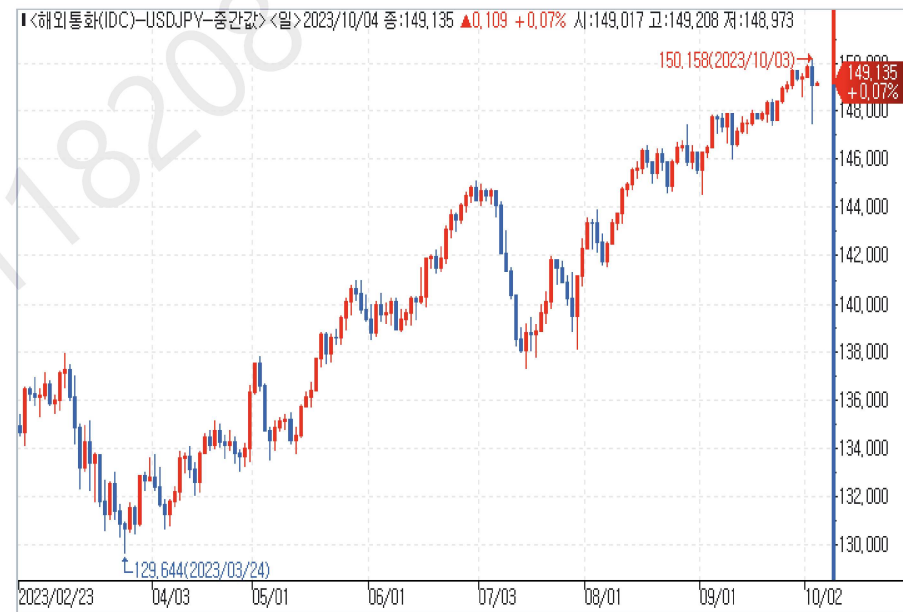
- 미국 8월 구인 관련 지표 호조 등에 따라 연준 위원들의 긴축 장기화 시사 언급 등이 이어짐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미 국채금리 급등을 견인하면서 환율 상방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 다만, 이러한 원화 환율의 연고점 갱신에 따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강화 속 수출업체들의 고점 인식 달러 매도 강화 움직임 등이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35.5	1356.0	1330.5	1349.3	+13.8

예상거래범위

1,350원 ~ 1,365원

엔·유로화 동향 (9/25~9/29)



유로화 동향

- 주초,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한 상황과 라가르드 ECB 총재의 비둘기적 발언 등이 유로화 약세 견인하며 출발. 이어 연준 인사들의 추가 금리인상 지지 발언 등 매파적 행보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 차별화 영향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하며 약세 지속
- 중반 들어, 유로화 반등 모멘텀 부재한 상황에서 견조한 미 경제지표와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 확대로 달러의 추가 강세 이어지면서 약세 흐름 심화
- 후반, 독일 9월 CPI 4.5%로 하락했음에도 미 지역 연은 총재의 정책적 실수 가능성에 대한 경계성 발언 등으로 달러 강세 제한된 측면 반영하며 유로화 반등. 이어 주 후반, 미 8월 근원 PCE 둔화 조짐 확인되고 유로화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된 영향 등으로 유로화 제한적 강세 보이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645	1.0656	1.0488	1.0573	-0.0072

엔화 동향

- 주초, 우에다 BOJ 총재의 YCC 정책 폐지 가능성 언급에도 미 국채금리 상승세에 따른 미·일 금리차 영향 등으로 엔화 약세 출발. 이어 일본 외환당국 구두개입 이어졌으나 연준 통화정책과의 차별화에 따른 엔화 약세 지속
- 중반 들어, BOJ 7월 통화정책 회의록에서 초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고수 의지 재차 확인됨에 따라 약세 흐름 속 달러당 149엔대 후반까지 상승
- 후반 들어, 연준 위원의 다소 완화된 발언과 일본 재무상의 구두개입성 발언 강화된 영향 등으로 달러 강세 제한되며 엔화 반등. 이어 주 후반, 미 PCE 물가 감소세 보였음에도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분위기 속 약세 흐름 이어지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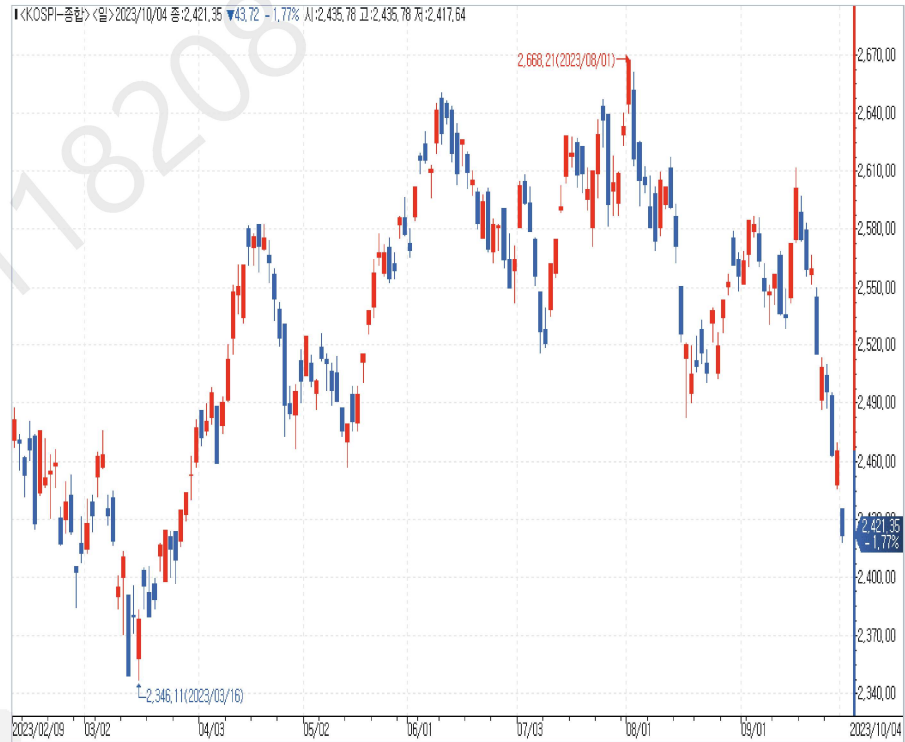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8.4	149.7	148.3	149.4	+1.0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9/25~9/27)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연준 위원들의 FOMC 이후 매파적 언급이 이어진 영향 등을 반영한 가운데 소폭 상승 출발. 이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등 연준 관료들의 높은 금리 유지 시사 등 매파 발언 속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연방정부 섣다른 가능성이 미국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시사 등이 반영됨에 따라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하며 상승 추세 유지
- 중반 들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기관들의 국채선물 매도포지션 조정 등의 수급 영향 반영 속에 소폭 하락 전환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확대 영향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지난 FOMC를 기점으로 재부각된 긴축 장기화, 연방정부 섣다른 우려 등이 완화 환율 상승과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하락 추세 지속된 양상
- 중반 들어, 상기 영향 등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지속에도 4거래일 연속 하락세에 따른 과도한 하락 인식 되돌림 등으로 5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전환하며 마감